

국회 종합헌정대상 수상소감문

대한민국 헌정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정치, 특히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국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7.4%로 조사대상 13개 기관·단체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 하기는커녕, 여야 각자의 이해만 챙기기에만 몰두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293명의 국회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된 이후, 이 같은 불신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다른 이해관계 전혀 없이, 처음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그 때의 그 초심으로,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종합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19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오늘 종합헌정대상 수상을 통해 임기 마지막까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강기윤

제19대 국회 ‘종합헌정대상’ 수상 소감

- 국회의원 강석호 (새누리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강석호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제19대 국회 4개년 종합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반기 간사 등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적인 문제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 중소기업 상생, 방만경영 개선에 초점을 맞춰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현장답사와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한 부처와 산하기관들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 ‘頂門一鍼’(정문일침)의 정책질의와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단체와 언론·기관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법안 41건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2월 현재 41건 중 25건이 처리되어 62.5%라는 높은 처리율로 19대 전체 국회의원 중 3위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어려움에도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생의 정치’를 펼쳐 원활한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임에도 뜻깊은 상을 주신데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향후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는 ‘민생우선의 생활정치’를 실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영양·영덕·봉화·울진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해 드립니다.

<권성동 의원>

감사하고 영광스럽게도 19대 국회 4년 종합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재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강릉시민 여러분께 오늘의 영광을 바치고 싶습니다.

아울러 저를 수상자로 선정해주셨던 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 등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에게 이처럼 큰 영광을 안겨주신 것은 지난 4년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칭찬이라기보다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국민의 채찍질로 알고 犬馬之勞(견마지로)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우리 강릉 시민들께서 저, 권성동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20대 국회에서도 강릉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치인은 화려한 말잔치보다 변화를 이뤄내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신념하에 ‘복지가 정치이고, 정치가 복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국민 누구나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대구 북구 갑 국회의원 권 은 희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제 19대 국회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리에서 종합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19대 국회의원 전체의 의정활동을 꼼꼼하게 평가하는 역할을 맡아주신 법률소비자연맹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종합헌정대상 수상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된 선배, 동료 의원여러 분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4년간 국회와 지역을 바쁘게 오가면서 다짐했던 여러 결심들과 주민들과 나누었던 많은 약속들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처음 먹은 마음이 곧 깨닫는 마음이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처음 국회의원 배지를 달던 그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종합헌정대상 수상이라는 큰 기쁨 앞에 더욱 더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겠습니다. 항상 옆에서 성원해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대구 북구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이 즐거운 정치를 위하여>

국회의원 김관영 (전북군산, 국민의당)

전력을 다해 어떤 일에 덤벼들 때 성공을 거두려면 그 일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하고, 또한 무엇보다 좋아하고 즐기는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지지자(知之者)는 불여호지자(不如好之者), 호지자(好之者)는 불여낙지자(不如樂之者)라던 공자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이 즐거운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정치란 세상을 바꾸는 즐거움을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4년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정치를 마주하면 고개를 저어버리는 국민 여러분들의 깊은 우려를 알고 있었기에 그동안 듣지 못한 현장의 숨은 목소리를 보다 더 귀담아들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만들며 국민의 삶에 일으킬 변화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정치의 즐거움을 맛보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4년을 되돌아보니 부족한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지만 참으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런 노력을 높이 평가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쪼록 수상의 영광을 원동력 삼아 앞으로도 좋은 정치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내고, 나아가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를 만들어내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종합헌정대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용인을 국회의원 김민기입니다.

4년간의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한 ‘제19대 국회 종합헌정대상’이라는 큰 상을 주셔서 무척 기쁘고 고맙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민을 대신해 합리적이고 정확한 분석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왔습니다. 국회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법률소비자연맹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제가 속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각종 사건·사고들에 대해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방을 위한 정책개발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자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들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하게 회의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대신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민생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키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꼭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용인 시민의 격려와 성원이 있었기에 의정활동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눈팔지 않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6. 2. 19

국회의원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울)

<국회의원 헌정대상> 김상훈 의원 소감문

새누리당 대구 서구 국회의원 김상훈입니다.

먼저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드립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는 매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분석·평가하여 우수위원을 선정하고 수상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시민사회의 시선으로 국회를 감시하고, 정치 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법률소비자연맹은 국회의정을 13개 분야로 분류하고 계량화하는 등 선진화된 평가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의정활동을 더욱 객관적인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저는 2014년과 2015년의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았고,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종합하는 금번 평가에서도 영예로운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 저는 공무원 출신의 정치 신인이었기에 인지도가 낮았습니다. 이에 밤낮없이 주민 분들을 찾아뵙고, 제 진정성을 보여드리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런 저의 행보에 주민 분들께서는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마음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첫 마음을 잊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석전경우(石田耕牛)’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자갈밭을 가는 소처럼 근면하게 일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난 4년간 변치 않고 지켜온 의정활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번 수상을 통해 그 초심을 되돌아보고, 다시 마음을 다잡아봅니다. 앞으로도 오직 국민의 말씀, 국민의 명령에 따라 묵묵히 일하는 김상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 “제 19대 국회 종합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성주(보건복지위원회)

먼저 ‘제19대 국회 종합헌정대상’에 선정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19대 국회 지난 4년간 국민들이 복지를 국가의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보편복지국가, 패자부활의 기회가 균등히 보장된 나라,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갖춰진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본인의 정치철학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했습니다.

정치인은 화려한 말잔치보다 자그마한 변화라도 이뤄내는 능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에 매진해왔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 어린이집 아동학대 현안 관련 활동,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활동, 메르스 대란을 맞아 당 메르스대책특위 간사로 활동하는 등 굵직한 국가현안의 해결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께 많은 것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은 재난적 의료비 부담을 덜고,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책임지는 나라, 그리고 극심한 시장경쟁으로 사각지대로 몰린 소외 계층을 보살피는 나라를 진정 바라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복지정책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현실입니다.

이번 종합헌정대상의 의미는 국회가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을 더욱 귀담아 듣고, 더욱 국민의 편에 서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복지가 정치이고, 정치가 복지’라는 신념하에 누구나 행복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한분 한분께서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편복지 강화, 국민의 건강권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종합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국회의원 김영주

법률소비자 연맹으로부터 ‘19대 국회의원 종합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말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대 국회 4년간 특히 어려운 서민과 영등포 주민들을 위한 민생입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성실히 출석해 활동해왔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본분을 다했을 뿐인데 이런 뜻 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오히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상 소감문

먼저,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19대 국회 4개년 종합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종합헌정대상 수상 의원으로 뽑아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종합헌정대상’은 정부기관이나 언론단체가 아닌 시민단체로부터 받는 상이기에 그 무게와 권위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19대 국회 4개년간의 의정활동을 무려 13개 분야로 나누어 꼼꼼히 분석·평가하여 선정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받는 상 가운데 최고 명예의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직후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상주시민들의 뜻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과 군인들의 편에서 철저히 그들을 대변하기 위해 애썼고, 때론 여당의원임에도 정부와 대립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9대 국회 4년간 국회 헌정대상과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연달아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고 저를 성원해주신 상주시민들의 뜻에 작게나마 보답한 것 같아 매우 기쁩니다.

끝으로, 오늘의 이 자리는 제가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한결같이 성원해주신 상주시민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늘 저를 믿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상주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김 종 태

반갑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입니다.

제19대 국회 4개년 종합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전통과 권위 있는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시는 상이기에 더욱 영광스럽습니다.

종합헌정대상 수상 소식을 듣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부터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위원까지 지난 4년의 의정활동 전반을 되돌아봤습니다.

우선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 전례 없는 모바일 여론조사를 도입해 5만여명에 달하는 교원의 근무여건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10년 이상 근무한 교원이 자율연수로 활용할 수 있는 무급휴직제도를 도입·시행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이 졸업 이후에 개시되도록 함으로써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도 의미 있는 입법이었습니다.

2014년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정부·여당을 설득했고, 예비비 5,063억원의 우회 편성을 이끌어냈습니다.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국고예산 확보와 법령정비 등 남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소관 부처의 위법행위와 고위공직자의 비리 등을 발견, 지적해 개선하고자 애썼습니다.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사퇴하도록 했고, 2015년에는 문체부가 위법하게 예산을 전용하여 진행 중인 문화창조융합벨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아울러 수차례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했고, 교육부·문체부의 부적격 후보자를 걸러내기도 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2013년 이후 3년 연속 NGO국정감사 모니터단 우수의원 선정, 작년 헌정대상 수상, 그리고 제19대 국회 4개년 종합헌정대상까지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금 감사합니다.

상은 칭찬인 동시에 응원입니다. 앞으로도 종합헌정대상이라는 영광에 어울리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성남시민과 국민 모두에게 올바른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대 국회 국회의원 종합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메카, 경남 거제시 출신 김한표 의원입니다.

먼저 초선의원으로 아직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주관 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로 부터 제19대 국회 1차년도와 2차년도, 3차년도에 이어 4차년도까지 4년 연속 의정 활동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받아 『제19대 국회 국회의원 종합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으로부터 『201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201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201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과 4년 연속으로 『대한민국국회 헌정대상』을 수상하고, 제19대 국회 국회의원 종합의정활동 평가에서 종합 2위로 평가 받은 것에 더 큰 기쁨과 함께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낍니다.

저는 지난 제19대 국회 임기동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순히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지적에 그치지 않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자료집 발간과 각종 정책 토론회 개최, 입법 활동 등 정부부처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실질적인 정책 대안자로서의 감시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저 김한표는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초심과 열정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낮은 곳에서 국민 여러분을 섬기는 겸손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한 지난 기간의 공과를 짚어, 남은 임기 동안에도 최선을 다함은 물론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초심의 정치, 열정의 정치를 계속이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2. 26

국회의원 김 한 표

「종합헌정대상 수상소감문」

국회의원 류성걸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대구동구갑 출신 국회의원 류성걸입니다.

먼저 19대 국회 4개년 ‘종합헌정대상’이라는 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9대 국회에 입성한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임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지난 4년은 잠시도 쉴 틈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국회 일정, 4년간의 기획재정위원회 활동,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활동, 네 차례의 국정감사와 2년 연속 계속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활동, 입법 활동까지 최선을 다해 온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국가재정 운영과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찾아 듣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항상 국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4년간의 의정활동 결과인 종합헌정대상 수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고민하고 더 분발하라는 채찍으로 여기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언제나 제 소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대구 동구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들, 저를 가장 가까이서 도와주고 있는 보좌진, 국회 사무처 직원 등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기에 오늘의 영광인 종합헌정대상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께 사랑받는 국회의원 류성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2. 26

대구동구[갑] 국회의원 류성걸

제19대 국회 4개년 『종합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국회의원 류 지 영

제19대 국회의 후반기를 마감하면서, 지난 약 4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로 『종합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종합헌정대상』은 지난 18년간 꾸준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정밀조사와 철저하게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이번 수상은 더욱 기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매우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에 입성한 후 보육료 현실화와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통해 교육현장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관계부처에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리는 것을 시작으로, 관련 예산증액과 법안제정에 앞장섰습니다. 지금도 많은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기억하시는 2014년 겨울, 다들 힘들 것이라 했던 보육예산증액을 예산 본회의 전 마지막 의총에서 목소리 높여 설득했고 결국 당론으로 인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개정안」,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 등 임기동안 총 9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1천 건 이상의 법안을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간담회를 자주 열어 대안을 모색하였고, <성 평등한 국회 만들기>와 같이 필요하다면 여야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늘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유아교육과 보육 환경 관련 예산 지원을 위한 노력도 함께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얼마 전 인천 아동학대 사건과 같이 현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나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한 점들을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부의 감시자로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모니터링과 분석 및 평가를 위해 항상 애 써주시는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 한 번, 『종합헌정대상』 수상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국민들로 부터 사랑받고 신뢰 받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대 국회 ‘국회의원 헌정대상’ 우수의원 수상 소감문>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문 정 립(새누리당 원내부대표, 비례)

안녕하십니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입니다.

저를 제19대 국회 종합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19대 국회의원의 4년간의 의정활동을 종합·체계화하여 평가해 주신 법률소비자연맹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특히,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 종합평가 3위로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우수 의원 선정은 그동안 저의 노력과 진정성에 대한 법률소비자연맹 여러분의 격려라고 생각하며, 외롭고 치열한 의정활동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는 성실함과 함께 무엇보다 생명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국회 각종 회의 출석은 물론 법안 발의,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국회의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제19대 국회 전체 의원 중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는 법안 가결 및 대안 반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016년 2월 10일 기준으로 대표발의 법안 건수 72건 중 44건의 법안이 가결되거나 법률(대안)반영되어, 약 61% 수준의 법안가결 및 법률반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안 발의에 멈추지 않고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 74회의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를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하도록 최대한의 노력했습니다. 이 중에는 새 정부의 공약인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토론회, 암·심장·뇌혈관질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입법·제도 개선 토론회, 고혈압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민 식생활 개선 관련 토론회 및 캠페인, 통일을 대비한 남북보건의료 협력 및 인도적 대북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에볼라출혈열에 대한 국가적 대책, 바람직한 금연정책으로서의 담뱃값 인상과 관련된 정책 방향 토론회, 포괄수가제 관련 토론회, 응급의료체계 당직 의무화 등 관련 토론회, 생명존중사상

과 동물복지 확립을 위한 화장품동물실험 관련 토론회 등 국가적 정책 방향 제시나 갈등 조절을 통한 대안 제시 등을 위한 토론회 등을 포함하여 당과 국가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에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번의 국정감사에서는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로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은 물론,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이행을 감시하고,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는 현안을 발굴, 시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국정감사를 수행하는 목적은 언론의 조명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불편·부당하게 집행되는 정책과 제도를 찾아내고 바로잡아, 결국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질 안건을 선정에 있어 자극적인 이슈를 건드려 단순히 언론의 주목을 받거나, 대안 제시 없이 폭로에 그칠 수밖에 없는 주제는 최대한 배제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제도·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안건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3회 국감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기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19대 국회 4년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해 정밀/분석/평가해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로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대신하여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의원의 책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해, 착한 법과 착한 정치로 착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대 국회 종합헌정대상 수상소감문

국회의원 백재현

안녕하십니까. 경기 광명갑 백재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상인 헌정대상을 올해에도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수상은 2013년, 2014년, 2015년에 이은 4년 연속 수상이자 제19대 국회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주어지는 ‘종합헌정대상’이기에 더욱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부족한 저를 전폭적으로 신뢰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우리 광명시민들과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에 수상하게 된 종합헌정대상은 제19대 임기 전체기간 동안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법률안 투표율, 처리된 법률안의 발의현황, 국정감사 성적, 상임위·본회의 출석률 등 13개 항목 평가기준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평가하여 주어지는 상으로, 의정활동의 충실함과 성실함을 평가하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19대 국회에서는 재선의원으로서 더 나아진 의정활동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더욱 열심히 뛰었습니다. 19대 국회 전반기에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민생안정과 지방분권을 위해 특히 노력했고, 19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된 2014년에는 상임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옮겨 MB 정부 5년간 무리하게 진행됐던 부실 해외 투자 등의 문제점, 부패와 안전 불감증 등 현 정부 실정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정부가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14년 말에서 2015년 초에는 당 정책위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힘을 보탰으며,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과 국민을 위한 진짜 민생 살리기,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등에 중점을 두고, 정부가 민생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헌정대상 수상은 민생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노력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 대단히 기쁩니다.

이번 국회 헌정대상 수상을 계기로 얼마 남지 않은 19대 국회 의정활동에 있어서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다잡고,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고 저는 앞으로도 광명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소중한 격려와 신뢰를 전달하기 위해 수고하신 법률소비자연맹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법률소비자연맹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헌정대상 수상소감문

국회의원 손 인 춘

19대 국회 4개년 종합헌정대상이라는 귀중한 상을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의정활동 평가분야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의 오랜 경험과 권위를 자랑하는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이 같은 큰 상을 받게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2012년 5월 19대 국회에 등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동안 국회 국방위원과 운영위원(2회), 여성가족위원, 태안유류피해특별위원으로서, 그리고 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과 제3사무부총장,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제2정조위원, 국제위원, 군의료개선특별위원, 북핵안보전략특별위원 등으로서 나름대로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전국시민단체총연합이 선정하는 <2012 모범국회의원> 등 2개의 상을 수상한데 이어, 2013년 7개, 2014년 8개, 2015년 11개 등 지금까지 총 29개의 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그동안 저를 믿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고마운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지면을 빌어 도와주신 한분 한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비록 저는 일찍이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여 19대 국회를 끝으로 정치권을 떠나지만, 남은 기간 국회에 등원하며 세웠던 저의 의정활동 목표인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돌보며 지원하는데 제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늘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9대 종합헌정대상 수상 소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입니다.

먼저 제19대 국회 종합헌정대상 수상의원으로서 선정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4년 전, 전문보건의료인으로서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보건복지의 향상을 위해,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본연의 임무를 다하겠다는 사명감으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그늘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여성, 아동, 노인, 환자, 장애인분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든든한 대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국민들께 부족한 모습이 아닌지 늘 성찰하였는데, 오늘 이 귀한 상은 저와 함께 해주셨던 분들과 사회적 약자 모두에게 주는 격려이자 응원인 듯합니다.

의정활동이 끝난 뒤에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권리가 귀하게 여겨지는 사회를 위해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 새누리당) 수상소감

법률소비자연맹이 성실한 국회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그동안 생산적인 의회,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한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19대 국회 전반에 걸친 평가를 통해 국회헌정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국회의원 4선 이상 중진의원 중에 유일하게 수상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서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몇가지 다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자는 것입니다. 다선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항상 국회참석률과 공약이행률을 지역주민분들에게 성실히 보고해왔습니다. 큰 강물도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물줄기들이 모여서 이뤄진다는 말처럼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해왔고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일념하에 일해왔습니다.

그 결과 19대 본회의 출석률 98.79%를 기록하여 전체 공동 6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공약이행에 있어서는 그동안 최우수공약이행상을 거의 놓치지 않고 받아왔습니다.

둘째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입법활동과 정책활동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19대 국회 기간동안 총 102건의 법안을 발의해 새누리당 법안발의 10위를 기록했고, 발의법안 중 34건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파산절처에 있는 회사의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지급을 보장하는 임금채권 보장법을 비롯해, 재건축 지원을 위한 건축법,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 관리법,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등이 국회를 통과해 국민 실생활을 개선시킬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정부정책을 이끌어내고, 아파트관리비 인하,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확대,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등 등록금 부담 완화와 무료 필수 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실효적 정책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신성장 사업 발굴, 산업개편, 국가의 대규모 유희지개발 사업 등이 필요하고, 정부의 저성과 사업에 대한 국회의 평가도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상임위 활동을 통해 ‘정책통’으로 인정받고 있는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생산적인 국회, 정책국회 본연의 모습을 찾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대 국회 ‘종합헌정대상’ 수상의원 소감문

더 발전하는 세상, 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서경에 ‘윤집궐중’(允執厥中)란 말이 있듯, 다사다난한 이 시점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걱정과 우려가 쌓여가니 마음 자세를 가다듬고 진실로 그 중심을 잡아 모두가 함께 강을 건너고 산을 넘는 상생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균형 정치를 위해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진실과 더불어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정성을 쏟아왔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마음에 안전과 행복이 자리잡도록 진력을 다한 점을 시민과 사회단체가 좋게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19대 국회의원 임기 동안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국회의원 헌정대상」 등 4차례 수상한데 이어 「종합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치란 혼자 진리를 탐구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의 공정한 평가와 활동이 국회와 국민 간 원활한 소통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회의원 활동에 긍정적인 국민적 신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회, 그리고 국가가 모두 상생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나침반의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법률(소비자)연맹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아낌없이 지지해주시고, 제 의정활동의 바탕이 되어주신 동대문지역 주민 여러분께도 큰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다시 한번 더 열심히 뛰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처음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恒心의 자세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26일

국회의원 안 규 백

법률소비자연맹 제19대 국회 종합헌정대상 수상 소감

안녕하십니까?

울산 동구 안효대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제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한 ‘제19대 국회 종합헌정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008년 초선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일하겠다.’는 다짐을 늘 마음속에 품고 나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의정활동을 해왔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해보곤 합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는 그동안 “앞으로, 앞으로”를 외치며 급히 달려오던 대한민국이 얼마나 ‘기본’을 도외시켰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이제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는 잘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할 시점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대한민국, 기본이 탄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번 ‘제19대 국회 종합헌정대상’을 주신 것은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질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자부심을 가지되 자만하지 않고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제19대 국회 ‘종합헌정대상’ —

국회의원 오제세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흥덕구 갑 오제세 의원입니다.

19대 국회 4년의 임기를 수행하며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이 수여하는 ‘종합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 국민의 대표로써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국민여러분의 칭찬임과 동시에 더욱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말씀을 수행하라는 채찍질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심화되는 양극화, 그리고 세계최고 수준의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고 민생경제 또한 매우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대한민국의 위기극복과 국민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재직시 무상보육법안,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 복지확대에 기여했습니다.

후반기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서민지원을 위한 농수축협·새마을금고·신협 예탁금 출자금 비과세 기한 연장,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국가 지원확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택시 LPG 개별소비세 교육세 경감 기한연장, 공공기관·지방공기업 3% 청년고용 의무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미흡한 과제가 수없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런 마음과 더욱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국가와 서민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진정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 참여하고 계신 시민·사회단체 여러분도 저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합헌정대상 수상소감문

국회의원 우윤근

의정활동 평가에 있어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자타가 공인하는 법률연맹의 종합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참으로 기쁘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모범의원으로 선정되면서 밝힌 수상소감에서 모범의원에 선정되었으니 이름에 걸맞게 더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약속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률연맹이 제19대 국회 4년을 객관적인 지표로 종합평가하여 엄격하게 평가한 종합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더욱 영광입니다.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상위의원 20명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잘 해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상은 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양·구례 지역민들과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돌아가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국회가 변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바로 오늘 다시 한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본분과 역할을 자각하며 더욱 성실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라는 격려의 의미를 잊지 않고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종합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안녕하세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유기홍(관악구 갑)입니다.

우선 제게 좋은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헌정대상은 특히 19대 국회 4년을 종합평가한 상인지라 제게 감개무량한 상입니다. 의정활동을 잘 평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해, 꼼꼼히 평가를 하느라 고생하신 홍금애 실장님과 여러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4년간 저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만 고집해 활동해왔고, 덕분에 대학생·청년들의 삶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활동을 다른 국회의원들보다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7% 대의 고금리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를 2%대로 낮춘 것은 물론이고, 6개월 이상 학자금대출을 연체한 신용불량 청년들의 연체금리를 20% 이내에서 12% 이내로 낮췄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일부 비리사학 문제, 영훈중학교 부정입학 문제, 정부 4급 이상 퇴직관료들의 관피아 문제 등을 비롯해,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도 집중했습니다. 지역간 문화 격차 문제와 영화산업계의 스크린 독과점 문제, 숭례문 등 문화재관리체계 소홀 문제도 지적했고, 입법과 국정감사를 통해 실제 제도개선을 시킨 부분도 많습니다.

이 모든 의정활동이 많은 국민들에게 칭찬받는 활동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법률소비자 연맹 덕분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지칠 수 있는데, 매년 공정하게 꼼꼼히 평가해주셨기 때문에 힘낼 수 있었습니다.

상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욱 성실히, 국민들에게 필요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대운입니다.

2016년 새해도 어느덧 두 달이 지나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희망의 새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노력이 있어 대한민국의 내일이 밝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선 오늘 이 영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 19대 국회 종합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분들과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시고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상이 지난 4년 간 국민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충실히 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채찍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하고 깨끗한 정치, 국회의원으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습니다.

정치인에게 있어 최우선 요구되는 자질은 청렴성과 도덕성입니다.

특권 없는 정치 실천, 기본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긴 적 없고 제 신념을 지키기 위해 양심에 어긋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 강북구 구의원부터 시의원까지 13년 동안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하면서, 그리고 19대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국민의 세금으로 관광성 해외연수를 단 한 차례도 가지 않았습니다. 목적의식 없고 국민 세금만 축내는 관광성 해외연수는 없어져야 한다고 지속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특권의 상징인 관용여권마저 없습니다.

제 정치인생에서 가장 큰 힘은 '기본'과 '도덕성'입니다.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을 정치신념입니다.

19대 국회 임기 4년 동안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방재정 전문가로서 지방자치의 올바른 발전방향과 경찰 소방의 임무수행 여건조성 등을 위한 입법활동 및 정책을 제시해 왔습니다. 지방재정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기초연금, 누리과정 등은 모두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이었음에도 그 재정부담은 지자체가 떠안고 있어, 지자체는 파탄 직전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해야 합니다. 지방소비세율을 5% 인상한 2조 원과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0.76%포인트 상향조정 한 1조 3,600억 원을 합하면 3조 3,6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주어야 지방행정이 위협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추진했습니다. 또한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소방서가 없는 곳이 전국에 40곳이나 됩니다.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기본적인 소방서비스마저 차별받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를 대폭 확대하고,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에 소방서 신설을 포함시킴으로써 지역에 따른 소방서비스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속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뜻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뢰받는 국회,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위해 본 의원이 누구보다 앞장설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대운(大運)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이천시 국회의원 유승우입니다.

‘제19대 국회 종합헌정대상 시상식’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행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신 국회 안팎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지난 4년 동안 과연 국민여러분의 가슴속 응어리를 잘 헤아려 드렸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는 시간을 갖으며,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19대 국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민들의 안전정책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현장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하였고 경제와 민생, 서민보호에 특히 중점을 두어 의정활동에 임했습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으로 인해 한일관계와 동북아시아의 미래가 퇴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로 잡으려는 정부 및 국회의 체계적인 중장기적 대응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하나 모여 ‘종합헌정대상’이라는 의미 있는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종합헌정대상’의 뜻 깊은 의미를 되새겨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한층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수상을 감사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2. 26

국회의원 유승우

【 유승희 국회의원 우수위원 수상소감문 】

안녕하십니까?

국회여성가족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종합헌정대상 국회의원으로, 높게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4년 연속으로 NGO단의 우수의원으로 선정, 2년 연속 헌정대상으로 선정된 것에 이어 이렇게 큰 상을 주신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택배기사들이 일하는 우체국 현장, 원자력발전소 현장을 돌아봤고, 국민들과의 간담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모든 정책의 시작도 현장이며, 대안도 현장에서 나온다는 믿음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다짐을 했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돌보겠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의 어려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눈물,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들의 목소리 등 우리 사회 을(乙)인 국민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고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대표로서 철저하게 정부, 권력기관을 견제하겠다는 원칙입니다. 국정감사, 상임위, 특별위원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초심의 마음으로 4년간 국민의 주신 무거운 책무를 다했습니다.

J.F. 케네디는 “국가는 시민의 하인이자 주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시민의 하인이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자입니다. 국민이 주신 상을 수상한다고 생각하니 해야 할 책무가 더 늘어난 듯합니다. 더 마음이 바빠집니다. 오늘 법률소비자에서 주시는 상은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여기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의의 대변인이 되도록 늘 귀와 마음을 열어두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상을 준 국민 여러분과, 늘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은, 성북, 삼선, 동선, 돈암2동, 안암, 보문, 정릉, 길음1동 주민 여러분, 성북구민 여러분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 좌절 없는 세상, 힘이 되는 정치를 위해 >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일산동구 국회의원 유은혜입니다. 먼저 공정하고도 엄정한 평가를 위해 애써주신 법률소비자연맹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9대 국회의원으로서 임기를 마무리 하며 '종합헌정대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늘 응원하고 격려해주신 일산동구 주민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4년 전,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 선서를 하며 다짐했던 약속, 얼마나 지켰는지 새삼 돌아봤습니다. 약속한대로 서민 정치·바른 정치·소통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고, 성실하고 유능한 의정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민이 주신 입법과 제도설계의 권한을 교육공공성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국민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쓰고자 노력했습니다.

그간의 노력을 평가받아 권위 있는 의정평가전문기관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종합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분명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난 4년 국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가 생각하면 수상의 기쁨을 말씀드리는 것조차 송구합니다.

국민의 삶이 더욱 고단해졌습니다.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고 서민들 삶의 고통과 걱정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때에 받은 이 상의 의미를 바로 새기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다는 칭찬의 의미로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더 최선을 다하라는 채찍질로 알겠습니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 불공정과 차별, 불통과 독주를 바로잡을 대안을 만드는 의정활동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겨울바람이 아직 쌀쌀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품고 있는 봄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계절입니다. 겨울은 끝내 하나의 봄이고야 만다는 시인의 통찰처럼 국민의 삶에 더 단단한 희망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의정활동, 좌절 없는 세상, 국민 삶에 힘이 되는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6. 2. 26.

국회의원 유은혜

제19대 국회 4년 종합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인천 남동을 국회의원 윤관석

안녕하십니까.

인천 남동을 국회의원 윤관석 인사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시상식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김대인 총재님 휘하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4년 종합헌정대상을 받음으로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에 합격점을 받은 것 같아 뿌듯하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조선 의원으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부족한 만큼 더 열심히 노력하고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그 결과로 조선임에도 불구하고 제정법을 3건 통과 시켰습니다.

또한 대표발의 87건, 공동발의 1,614건의 법안을 지난 4년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남동구와 인천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로 인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 인천 최초의 국립문화시설인 세계문자박물관 유치, 남동산단 경쟁력 강화산업단지 지정 등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단순히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닌, 저를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신 지역 주민들의 힘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늘 민생현장을 누비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살아있는 의정활동, 더욱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인천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소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유권자와 시민단체의 평가에 있어서 독보적인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고 있는 법률 소비자 연맹의 4년 종합 헌정대상 수상과 함께 한해도 거르지 않고 4년 연속으로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달서을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4년간의 의정활동이 합격점을 받은 것 같아서 지역주민들의 격려와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대신해서 선출직 공무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꾸준한 평가를 주관하고 있는 법률소비자연맹총본부의 부단한 노력들은 국회의원들에게 행동 하나 하나와 입법에 있어서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 있어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부단한 노력을 매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는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를 드리며, 국회의원 헌정대상이라는 영광스런 상을 수여하게 된 것을 계기로 앞으로도 항상 지역구와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 열심히, 더 바르게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2.26.

국회의원 윤 재 옥(새누리당, 대구 달서을)

< 19대국회 종합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

안녕하십니까? 서울 노원갑 출신 이노근 국회의원입니다.

19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제 19대 국회 4개년 종합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인해 저는 '제 19대 국회 의정활동 종합평가 1위 의원'이라는 과분한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충실하게 해달라는 국민 여러분의 격려로 알고 겸손하게 받겠습니다.

입법은 국회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 책무입니다. 입법권은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간 저는 입법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줄기차게 달려왔습니다. 국회 등원부터 지금까지 총 138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고, 이 중 59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다른 의원들과 공동발의한 법안도 1,222건에 달합니다. 남은 임기 기간에도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이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상임위원회에서는 4년 내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통, 주택, SOC 등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깊은 정책 아이디어와 대안을 제시하고, 해당 분야 법안 개정에도 참여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어 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약 2년간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 곳곳에 존재하는 안전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하는 일에 매진해왔고, 2015년 1월부터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일원이 되어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힘써온 바 있습니다. 이번 헌정대상 수상으로 인해 국가를 위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 같아 더없이 뿌듯하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수상의 영예를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국회의원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나라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19일

국회의원 이 노 근

법률소비자연맹 종합평가 수상소감

국회의원 이명수(충남아산, 새누리당)

우선 항상 국회의원들이 올바르게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는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처음 선거에 임했을 당시 소외된 이웃을 위해 힘쓰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 때의 마음 그대로 살기 좋은 대한민국, 활기 넘치는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데에 미약하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노력했을 뿐인데 이렇게 좋은 성적을 받은 것은 우리 아산시민과 국민 여러분의 성원 및 애정 어린 조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그동안 국민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나은 모습, 더 발전된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깨끗하고 굳건하게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쳐 신뢰받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변함없는 우리 아산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 칠곡·성주·고령 국회의원, ‘농민의 아들, 근로자의 친구’ 이완영입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전국 270개 시민단체 연대체인 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서 매년 국회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모니터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주시는 법률소비자연맹총본부가 선정한 ‘제 19개 국회 4개년 종합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4년의 의정활동 중에 가장 보람되었던 것을 꼽으라면, 전반기에 환경노동위원으로서 대표발의 했던 ‘정년 60세법’의 통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해되고 있는 고령화시대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으로 더 오래 일 하고 싶은 근로자들의 꿈을 실현시켜 많은 감사인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농민의 아들’로서 농가의 애로사항들을 듣고 현업의 농축산민과 환경부·농식품부·국토부 간 의견조율 및 가교역할을 담당하며 무허가축사 양성화 위한 폐쇄명령 유예기간 연장, 축사에 비가림시설과 축사 간 연결 허용, 그린벨트 규제개선 완화 추진, 생산녹지지역 내 건폐율 완화 등을 이루어 농민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도 들었습니다.

한편 저는 평소 국민의 행복, 삶의 질을 높이려면 생활 밀착형 SOC 사업이 보다 확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하반기에는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민들이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불편 사항부터 해결해 나가고, 국정감사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정부에 도로, 공항, 철도, 건물, 건설현장 등 안전문제에 관한 총체적인 점검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고,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큰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민의 소통 창구로서 ‘손톱 밑 가시’를 속 시원하게 뽑아주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단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대 국회 종합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국회의원 이운룡 (새누리당, 비례대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최고의 영예라고 생각하는 종합헌정대상 수상이 되어 기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실물경제를 살리고, 사회정의를 바로세우며, 소외된 이웃을 챙기는 것을 의정활동 최우선 과제로 실천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날카로운 시각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의사가 중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국회 활동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 단계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그 선봉에 법률소비자연맹이 있습니다.

18여년 동안 국회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사항들을 세세하게 살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온 법률소비자연맹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미래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으로 현장에서 발로 뛰며 문제를 해결하는 의정활동을 펴나가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고, 겸손한 자세로 민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국회의 올바른 역할 정립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 계시는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입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큰 역할을 담당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재영입니다.

먼저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 번 수상의 영예를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하며, 기쁨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것 같습니다.

이번 종합헌정대상은 19대 국회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하라는 격려로 알고, 남은 임기동안 더욱 더 열심히 저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겠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진정성을 가진 정치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국민 가까이 있는 정치인만이 국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지역활동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과 국회에서의 의정활동을 통해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답답함을 해소하고 정부의 살림살이를 바로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힘들 때마다 제 손을 잡아 주시며 일으켜 세워 주신 고마운 강동(을) 주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주민분들께서 바라는 책임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붉은 원숭이의 해에는 모두의 꿈이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국회의원 이찬열(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19대 국회의 마무리를 앞두고 이렇게 명예로운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수원시갑, 장안구의 국회의원으로서 저 이찬열의 19대 국회 4년 간 의정활동의 목표는 지역주민과의 약속,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목표를 향한 저의 의정활동이 결실을 맺어 지역주민과 약속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은 올해 기본설계와 선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성균관대역 재개발사업’은 지난해 8월 착공하여 현재 2018년 5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과 친환경 LPG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과 기존 LPG차량 사용자의 재산상의 손실 피해를 최소화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군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확산시키고자 ‘군인복지법 개정안’ 등 109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여 입법활동에 있어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장안구민과 국민만을 보고 의정활동에 전념했을 뿐인 저를 ‘국회의정 4년 종합 평가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셔서 저의 19대 국회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평가는 국회의 입법 프로세스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며, 또한 주요정책현안에 대해서도 정파나 이념을 떠나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국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변화를 이끌어주시는 시민단체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법률소비자연맹 임직원 여러분과 국회의정활동 모니터링에 참여해 주신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국민만을 바라보는 의정활동으로 국민께 사랑받고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정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소감문

이철우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김천 출신 이철우 국회의원입니다.

우선 법률소비자연맹에서 19대 국회 4년간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두고 종합적 분석을 통해 시상하는 국회 종합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의 법률안 발현황과 국정감사 성적, 회의 출석률 등 국회의원으로 가장 기본이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을 평가함으로써 수상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기에 오늘 종합헌정대상 수상에 대한 의미가 더 큼니다.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수여하는 이 상은 4년의 의정활동에 대해 칭찬하기에 앞서 국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에 임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 법률을 발의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안전을 의결하는,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국회활동에 정진하라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19대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간사·안전행정위원·국토교통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그 성과에 대한 평가로 이 상을 받았지만 여전히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행복과 국가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모토를 당나라 시대 고승인 임제선사가 말한 ‘수처작주(隨處作主)’로 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디서든 주인된 마음으로 일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본 상의 수상과 함께 저는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처작주’의 마음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시는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9대 국회 종합헌정대상」 수상소감

경북 문경·예천
국회의원 이한성

안녕하십니까?

경북 문경·예천의 국회의원 이한성입니다.

먼저 사법과 입법기능의 감시와 법률·인권교육을 통한 사법정치개혁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해 헌정대상 수상과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이어 ‘제19대 국회 종합헌정대상’까지 수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자리 없는 성장,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를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는 이념과 사변에서 벗어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 편의와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 입법, 민생을 위한 답을 찾는 기본적인 소임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 상은 지금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의회민주주의의 성장, 지역발전과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저의 노력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와 격려의 표시라고 생각하기에 더욱 뜻 깊습니다. 이러한 신뢰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 국회가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는 선진국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9대 국회 종합현정대상 수상소감문 국회의원 이현재 (새누리당, 경기 하남) -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경기 하남 국회의원 이현재입니다.

19대 국회가 마무리 되는 붉은 원숭이해의 초입에, ‘제19대 국회 종합현정대상’의 영예를 안겨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이번 수상으로 19대 국회 4년 연속 현정대상 수상의 기록을 세우게 되어 기쁨이 어느 때보다 큼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영광을 만든 원동력이 되어주신 하남시민 여러분들께 더욱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이 결실을 맺어 이처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오로지 대한민국 경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그리고 지역구인 하남시민만을 바라보며 우직하게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를 맡아 박근혜정부의 국토교통, 산업, 중소기업 등 현 정부의 5년간 밑그림(국정과제)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맡았고, 최근에는 큰 이슈가 된바 있는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산업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 위원장을 맡아 부실 공기업 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특위 부위원장, 민생119부분부장 등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습니다.

저를 선택해주신 하남시민들과의 4년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회와 지역사무실 한켠에 공약실천판을 설치하고, 직접 모든 공약을 챙겨왔습니다. 하남지하철 5호선 연장 등 총 16건의 공약 중 11건을 완료했고, 5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대 국회가 어느덧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초심을 잃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초심불망 마부작침’(初心不忘 磨斧作針)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일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에게 항상 무한한 지지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하남시민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하며, 하남의 대표로서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익산시(을) 지역구 국회의원 전정희입니다.
25년간 정통 시민단체로서 사법·입법감시, 법률인권교육, 사업·정치개혁을 통해 사회
정의를 실천해온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먼저 제19대 국회 종합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매년 선정하는 국회의원 헌정대상과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그 어떤 상보다 권위 있고, 국회의원들이 가장 받고 싶은 상이었습니다. 특히 종합헌정대상은 국회의원 임기 4년 간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했다는 점에서 더 큰 영광으로 다가옵니다.

스스로 4년을 평가해볼 때, 저는 전북의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안전망 확보와 양극화 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말보다 행동, 선언보다 실천’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펴온 것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대표 시민단체로부터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큰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매년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운영을 주관하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국민의 시각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시해왔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자체 개발한 의정평가 방법으로 매년 헌정대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소비자연맹의 활동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변하는 충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2011년 제정되어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법률소비자연맹의 헌정대상은 국회의원에게는 격려를, 국민들에게는 신뢰를 부여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기반이 되어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연맹의 의정감시운동은 대한민국 국회가 신뢰받는 민의의 전당으로 존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더 열심히 국민을 섬기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에게도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회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더욱 냉철하고 공정한 감시활동을 전개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 양주·동두천 출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입니다.

제19대 국회 4년간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평가하여 시상하는 ‘제19대 국회 종합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9대 국회 전반기에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후반기에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기도 하였으며, 아울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하반기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로서 수준 높고 품격 있는 의사진행으로 여야 간 불필요한 정쟁이나 파행없이 상임위를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역구의원으로서 낙후된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규제 합리화를 위한 TF구성을 제시하는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의미있게 평가해주신 것 같습니다. 더욱 노력하고 책임있는 정치인이 되라는 의미로 이 상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자료를 검토를 하며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고생하신 김대인 상임공동대표님을 비롯한 평가위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국회4개년‘종합헌정대상’ 수상 소감>

더 낮게, 더 열심히, 더 겸손하게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25년 전통의 법률전문NGO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19대 국회 4개년‘종합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19대 국회 들어와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우수의원 헌정 대상을 두번 수상한데 이어 임기말에 19대를 종합 평가하는 제19대 국회 4개년 ‘종합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이번에 평가, 발표한 ‘종합헌정대상’은 19대 국회 4년간 국회 의정활동을 13개 평가항목별로 엄정하게 자료를 수집, 분석, 평가하여 상위 25%인 75명을 선정해서 수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이런 귀한 상까지 받게 되어 기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생각하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 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19대를 뛰어 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헌정대상’시상을 위해 전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하나하나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계량화하여 분석, 평가하느라 많은 땀을 흘리셨을 법률소비자연맹 활동가 분들과 모니터단의 노고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이 대한민국 국회의 발전과 국회의원의 역량 강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국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헌법정신의 구현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마포 구민과 저를 지지해주시는 많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낮게, 더 열심히, 더 겸손하게 일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6. 2. 26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정 청 래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을)

제19대 국회 ‘종합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정희수 의원입니다.

제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종합헌정대상’ 수상자로 제가 선정된 것에 대해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2년 5월, 제19대 국회 개원 후 지금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오늘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소중한 결실을 맺는 듯해 기쁘고 뿌듯하지만, 한편으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수상이 축스럽기도 합니다.

그동안 저는 270여 시민 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으로부터 8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국회의장 주관의 국회의원 연극단체 시상식에서 7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으로 3년 연속 선정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전문성을 입증 받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9대 국회 개원 후 현재까지 약 180여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해왔으며, 하반기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신뢰받는 국회의원으로 모범을 보여왔습니다.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입법 및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선량으로서 오늘의 수상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 평가에 애쓰신 법률소비자연맹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향후에도 시민사회의 성숙과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 2. 26

국회의원 정 희 수

(새누리당, 경북 영천)

[제19대 국회 종합헌정대상 수상 소감]

국회의원 주승용(국민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역사와 전통의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에서 선정하는 제19대 국회 종합헌정대상 수상은 국민의 선량(選良)인 국회의원에게 무한한 영광이자,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 전해주시는 신뢰와 따뜻한 격려입니다.

저는 제19대 국회 전반기에는 호남 출신으로 34년 만에 국가 SOC를 총괄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의 막중한 책임을 맡아 지역균형발전을 중점으로 의정활동에 임했습니다.

특히, 지난 이명박정부 최대의 실정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예산낭비, 비자금 형성, 담합비리, 안전 등에 대해 전반적인 검증을 이끌어 냈으며, ‘경쟁도입’이라는 명분으로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던 KTX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장 취임부터 공공성 저하 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무산시키기도 했습니다.

후반기 국회에서는 안전행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민안전 증진과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해외자원외교 실패 및 동반성장 등 상임위 현안에 집중하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제19대 국회 종합 헌정대상의 뜻 깊은 수상은 정치입문의 초심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며, 깨끗하고 올바른 정치를 하는 것만이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 여러분이 정치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19대 국회 종합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에서 선정하는 ‘제19대 국회 종합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여깁니다. 4년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렇게 큰 상을 주시니 감출 수 없는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의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께 진심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9대 국회 종합헌정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13개 평가항목별로 엄정하게 분석해 평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에서 제가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니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이렇게 평가해 주신 데 대해 눈시울마저 붉어집니다.

저는 19대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방송, 통신, 과학, 원자력 분야를 꼼꼼히 감사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저는 막 말방송, 왜곡편파방송, 불공정방송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바로잡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나쁜 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이끌어 냈고, KBS·MBC 등이 공영방송과 종편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송환경 만들기에 주력해왔습니다.

특히 ‘방송장악 저지’와 ‘방송정상화’를 저의 19대 국회 의정활동의 최우선 소임으로 삼아 누구보다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잘못된 것을 꼼꼼하게 분석해 고발하고 의제화시키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입법활동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방송과 언론을 정상화하는 일이니만큼 언론들로부터 관심을 받기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적대적으로 대하는 언론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꾸준하게 ‘밥값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저를 알아주셔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니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열심히 해서 4년 뒤에도 꼭 이 상을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 최봉홍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제 19대 국회 4개년 '종합현정대상'에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19대 국회에 등원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과제는 중간착취 없는 노동시장 구현, 노동기본권 확립,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 촉진 등을 통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출발점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노사간 계약 자율의 노동법 재정비를 최우선으로 삼아 노력했지만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민들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민생 안정을 위한 노동 및 환경 법안 발의와 정책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성실함을 잃지 않으려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높이 평가해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경제위기로 인한 내수 침체와 청년 실업, 북한의 4차 핵실험 등 나라 전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치권은 정당의 기득권을 앞세워 정쟁만 하고 있는 모습만 보이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다시금 돌아보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재임기간에도 나라의 발전과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2.26.

국회의원 최 봉 홍